

12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오바마 뉴딜정책’ 반기며 이틀째 랠리 [다우: 8,934.18pt (+ 3.46%)]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新)뉴딜정책’을 반기며 급등세로 마감했음. 사경을 헤매던 자동차 빅3가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음. 뉴욕증시는 개장전부터 강세를 예고했음.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표현은 아시아와 유럽증시를 차례로 급등시킨데 이어, 이날 뉴욕증시의 이틀째 랠리를 이끌었음.
오바마 차기 정부의 新 뉴딜 정책 기대감 확대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주말 향후 2년간 2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프로그램, 학교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음. 전문가들은 투자규모가 수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빅3 구제기대감, 자동차 주 랠리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소위 미 자동차 ‘빅3’ 지원안이 금주중 의회표결을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음. 바니 프랭크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조지 W.부시 대통령이 150억달러 규모의 빅3 지원안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음.
랠리속 인력감축은 계속..고용불안 여전	지난 주말 11월 고용지표가 34년만에 최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감원은 이날도 이어졌음. 11월 고용감소는 월가의 전망치보다 무려 20만개나 많은 53만개에 달하며 충격을 안겨주었음.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은 2010년까지 연간 7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원의 11%를 감원하고, 20개 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사업도 매각하기로 했음. 대형 제조업체인 미국 쓰리엠(3M)도 내년중 1,800명을 감원하기로 했음.
유가 7%↑ 43弗..`부양책+감산 기대` [WTI: \$43.71 (+ \$2.90)]	국제 유가가 미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기대감에 힘입어 7% 이상 급등했음. 오는 17일 OPEC 회의를 앞두고 감산폭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급등을 부추겼음. 차킵 켈릴 OPEC 의장(알제리 에너지 장관)은 지난 주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감산에 대한 회원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감산폭이 상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은행장 “정부에 하이브리드채 인수 요청 검토”	시중은행장들이 정부나 채권안정펀드가 하이브리드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자본을 높이는 안에 대해 논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 하락을 위해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 등 고금리 채권 발행을 자제하는 데도 합의. 대주단 협약에 신청한 건설사 30개 중 27개사를 승인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함

제목	주요 내용
건설사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조정	한국신용정보평가 건설사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조정함.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우려.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연기 “속내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전망 발표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미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이유.
생산자물가 45년만 최대 하락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국내 물가도 본격적인 하락 흐름을 보임. 생산자물가는 45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8일 한국은행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2.3% 하락. 이는 지난 1963년 10월(-2.9%)이후 가장 큰 하락률.
중국 수출은행 “빅3 사고싶다 … 100억 위안 지원”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미국 자동차 빅3(포드·크라이슬러·GM)를 살 의지가 있음을 처음 밝힘.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 자동차 회사를 싸게 사들여 자국 자동차 산업기술을 키우겠다는 전략.
중국 “경제성장률 8% 지켜라” 총력태세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을 8%선에서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는 8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률 8%를 사수하는 ‘바오바’(保8)에 맞추기로 함.
EU, 佛 은행구제금융 승인	유럽연합(EU)은 8일 유동성 위기에 놓인 은행의 자본 확충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은행 구제금융을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빨리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프랑스 정부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